



##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 확대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유로존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.

- 유로존 산업생산이 2014년 5월과 6월 각각 전월대비 1.1%, 0.3% 감소하였으며, 7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.4% 상승에 그침.
  - 특히, 유로존 경기회복세를 견인하였던 독일의 6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.3%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, 독일 기업들의 경기 체감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수인 ZEW 경기기대지수<sup>1)</sup>도 7월 27.1에서 8월 8.6으로 하락함.
- 일본의 경우 2014년 4월 1일 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2014년 2/4분기 GDP 성장률이 -6.8%(연율 환산)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.
- 중국의 경우 GDP 성장률은 2014년 1/4분기 7.4%, 2/4분기 7.5%를 나타내며 반등하였으나, 여전히 부동산 시장 위축, 신용위험 확대,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음.

■ 미국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나타나 조기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나, 미 연준(Fed)은 아직까지 정책금리 인상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-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책금리 인상을 통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.
- 그러나 일부 다른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아 저금리를 유지하여 완전한 경기회복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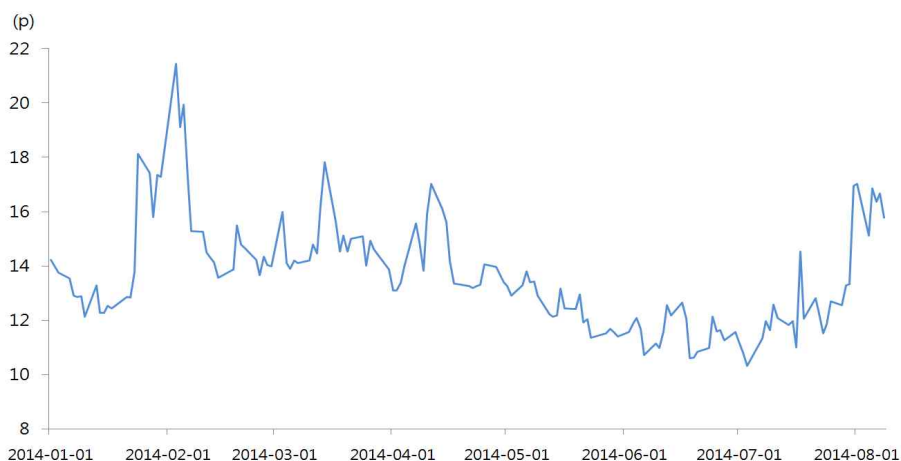
1) 독일의 민간 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(ZEW)는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지수화하여 발표하고 있음.

- 미 연준 부의장인 스탠리 피셔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회복세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으며, 이는 미 연준이 조기 정책금리 인상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.

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증가가 글로벌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
- 미국과 유럽연합(EU)의 대(對)러시아 경제제재가 이루어진 가운데 러시아도 일부 국가들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대응하면서 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있으며, 이는 유럽 경제에 직·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- 2014년 7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과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졌으며, 최근까지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.
- 이라크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14년 8월 8일 공습을 통한 이라크에 대한 군사개입을 시작하였으며, 이라크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금융시장과 유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.
-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인 VIX 지수<sup>2)</sup>의 경우 2014년 초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우려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빠르게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, 최근 지정학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있음.

〈그림 1〉 VIX 지수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2) VIX(Volatility Index)란 S&P 500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의미하며, 주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됨.

-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의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우리나라 수출입이 둔화될 수 있어 내수경기 회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
-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,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.

(한국경제, 국제금융센터, FT 등)